

한 · 미 FTA와 제주감귤농업의 대응전략*

(Jeju Mandarin Strategies in connection with Korea-USA FTA)

고 경 표**

(Koh, Kyung-Pyo)

목 차

- I. 서론
- II.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타결
- III. 제주감귤농업의 실태
- IV. 제주감귤농업의 대응전략
- V. 결 론

I. 서론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2006년 2월 한미 양국간 FTA협상 개시선언 이후 약 14개월 간의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된 것이다. 이제 양국의 의회가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의회의 비준이 완결되면 한미간의 경제국경선이 제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된다. 한미간의 개별경제주체들이 서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한국 상품은 미국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하며 미국 기업도 동시에 비교우위상품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열된다. 이제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GATT체제가 수립된 이후 국제경제환경은 발전과정은 무역자유화 완성위한 줄기찬 여정이었다. 1960년대 도쿄라운드, 1970년대 케네디라운드, 198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 1990년대의 WTO 출범, 2000년대의 FTA의 흐름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상징이라 하겠다. 이는 세계 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개발의 촉진으로 빈부격차의 축소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재)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견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흐름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고 있으며 무역강국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선진통상국가들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점증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개방화를 통해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한국은 2007년도 무역액 약 7,200억불을 달성하여 무역의존도 70%에 이르고 개방화 전략은 국가발전을 위한 유일한 전략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세계무역의 약 50%가 FTA 등 지역협정체결국가간이 수행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한국이 FTA를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국가경쟁력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한 확산됨으로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 약화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RICs 등 개도국의 맹추격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수출시장의 확대전략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FTA의 확대전략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무역환경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제주지역의 농업, 축산, 감귤, 관광, 교육, 의료에도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되도록 개선하고 구조적 혁신이 요구된다. 글로벌흐름의 소용돌이 속에 제주감귤농업 역시 중요한 생존의 기로에 봉착한다. 제주감귤농업의 생존이나, 파멸이나 하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제주감귤농업의 살길은 무엇일까? 한미 FTA타결로 인하여 본격 도래될 글로벌 경쟁시대의 제주감귤농업의 생존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고는 첫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FTA 타결을 살펴보고 둘째 제주감귤농업의 실태를 분석, 고찰하며 셋째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속에서 한미FTA 타결로 야기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제주감귤농업의 생존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제주감귤농업에 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이미 선행되어 있지만 국제통상측면에서의 연구가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통상환경에서 제주감귤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를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물과 발표문헌 및 관련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목적 달성을 하고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에 제주감귤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I.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타결

2.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¹⁾

2.1.1. WTO체제의 정착

1995년도에 출범한 WTO체제로 인하여 세계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계소비자의 후생수준이 향상됨으로서 WTO체제는 점차 순조롭게 정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세계무역규모가 약 9조 달러, 2000년도에 약 13조 달러, 2005년도에 약 21조 달러를 시현함으로써 WTO출범 이후 2.3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WTO체제로 인하여 관세율이 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었고 무역 분쟁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세계교역환경이 크게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5년도의 WTO체제는 순조롭게 정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세계교역규모

(단위 : 조US\$)

구 분	1994년	2000년	2005년
세계교역규모	8.73	13.1	21.2

자료 : 지식경제부 2007

더구나 WTO/DDA협상이 2006년 주요협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중단된 이후 2007년 1월 DDA NAMA 분야협상이 재개되고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26개국 통상장관들이 DDA협상의 즉각적인 재개에 합의하고 2007년 부시미대통령의 뉴욕 연설에서 TPA²⁾연장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WTO/DDA협상이 가속되어 농산물을 비롯한 세계교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FTA시대에서의 무역구제제도 2007

2) 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증진권한)의 약호로서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권한으로서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가 찬반만을 의결하게 됨

2.1.2. 세계적 FTA의 확대

WTO 출범 이후 국가간 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간의 교역을 크게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6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을 살펴보면 표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27건, 1995년 60건, 2000년에 102건, 2006년 211건이 통보되어 이 가운데 19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51건으로서 세계무역이 마치 FTA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FTA시대가 도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세계 FTA 체결 실태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FTA	3 건	6 건	17 건	27 건	60 건	102 건	211 건

자료 : 지식경제부 2007

이는 국가간의 무역협정을 통해 대규모시장을 형성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무역규제를 회피하여 국가간의 교역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의에 대응전략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무역전략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3> 주요 국가별 FTA 체결 실태

(2006. 9)

구 분	한 국	미 국	중 국	일 본	EU	싱가포르	호 주	칠 레
FTA 체결	6개국	15	14	5	39	24	5	46

자료 : 지식경제부, 2007

주요 국가별 FTA체결 실태를 살펴보면 표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9월 현재 한국이 6개국, 미국이 15개국, 중국이 14개국, 일본이 5개국, EU가 39개국, 싱가포르가 24개국, 호주가 5개국, 칠레가 무려 4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FTA체결을 통해 시장 확대를 시현하고 자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전략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4> 주요국의 FTA체결국가간 교역비중

(단위: %)

구 분	한 국	미 국	중 국	일 본	칠 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교역비중	0.5	35.3	19.6	2.9	66.8	25.1	53.7

*2005년 말 체결기준, 2003년 IMF 수출입통계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2007

2.1.3.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등장

199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이 본격 개방되고 브라질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원유가 상승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인도가 IT를 비롯한 산업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국가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개발로 인하여 세계적 거대시장으로 부상하여 세계교역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들 BRICs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시장개방과 투자활성화로 인하여 세계 거대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며 향후 30-40년 후에는 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G6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05년 G6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볼 수 있으나 2040년도의 G6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BRICs와의 무역거래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표 5> 주요국의 수입규모

(단위: 억US\$)

구 분	미 국	BRICs	일 본
2001년	11,410	3,867	3,505
2002년	11,614	4,402	3,378
2003년	17,325	9,954	5,151

자료 : 지식경제부, 2007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1995년도 WTO체제의 출현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는 FTA 체결 증대로 개방화가 가속되고 BRICs국가의 부상으로 저가제품의 국내유입이 대량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내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중국, EU 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국내기업이나 국내제품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우위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최근 한국의 FTA 협상 동향¹⁾

근년에 들어 우리나라는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및 걸프협력이사회(GCC :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와 협상을 진행 하였으며, 04년 11월 제6차 협상 이후 중단된 일본과는 FTA협상 재개 문제를 실무선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페루와는 08.11.22일 양국정상간 FTA협상 추진을 공동선언한바 있다. FTA협상 사전단계 진행과 관련하여, 중국과는 07년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8년도 말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안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2009년에 협의를 지속할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뉴질랜드와는 07년에 공동연구를 추진으로 위한 예비협의를 개시하였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는 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FTA 개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9년도에는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호주·뉴질랜드와는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페루와는 상반기 중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2008년도 FTA 농업협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한 · EU FTA

한·EU FTA 는 08.1월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만, EU측 요청으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EU측은 민간품목의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 대부분 수용 가능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EU측은 감귤, 감자, 설탕 등 관심품목은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요구하였다. 제7차 협상(5.12~5.15, 브뤼셀)에서는 상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 표시 등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 작업장 승인 절차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주

1) 전종민, "2008년도 FTA 협상 동향" 농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국제농업소식, 2008. 12.

로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상기 절차에 있어 수입국의 검역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문안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인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기준 작성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EU측은 우리측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리적 표시 분양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 문안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의,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분양별 회기간 회의를 계속 집중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협상은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8차 협상의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분야별 회의 기간 협의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2.2. 한·캐나다 FTA

2008년도 들어 한·캐나다 FTA협상은 상반기에 한차례의 정례협상과 한차례의 회기간 협상만이 개최되는 등 협상은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협상 전반적으로 볼 때, 2005년 협상 개시 이래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부 핵심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었다. 다만, 농업분야는 아직도 잔여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 및 대두 등 품목의 수입쿼터량 등에 있어서는 양측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양측이 상대국 관심품목을 얼마나 양허할지에 달려있다. 즉, 한국측 관심품목인 자동차, 캐나다측 관심품목인 쇠고기·돼지고기의 양허수준이 협상 타결을 핵심사항이다. 현재 협상은 막바지 단계로서 농업분야에서도 타결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각적 접근 및 다양한 대안 모색 등 대응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2.3. 한·인도 CEPA¹⁾

한·인도 CEPA 협상은 08년도에 실무협의 2차례 포함 5차례 협상을 하였으며, 9월 개최된

1)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에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말함.

제1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 핵심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한 상황이나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업 외에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우리나라의 민감농산물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한-인도 양국 모두 농업과 같은 민감분야에 대하여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인도측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며, 우리측은 인도측은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가능한 한 낮춤으로써 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결과 우리 민감 농산물의 대부분을 양허제의 유형에 포함시키거나 관세 부분감축 유형에 포함시키거나 관세 부분감축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상타결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2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 협상결과를 실무적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 협상결과를 발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 역시 최종 확정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이 양국간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확정된 후 양국 간 국내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9년경 서명·발효될 전망이다.

2.2.4. 한·멕시코 FTA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FTA의 구성국인 멕시코와는 '06.2월~6월까지 3차례의 SECA¹⁾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측은 포괄적 범위의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농수산물에 한정된 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07년 7월 멕시코측은 SECA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우리 측이 이를 수용, '07년 12월에 제 1차 한·멕시코 FTA 협상을 개시한데 이어 '08.6월 서울에서 제 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로부터 약 380억원('07년 기준) 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약 0.3%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맥주 등이다. 한·멕시코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 EU 및 중국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1)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경제보완협정)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음

2.2.5. 한·GCC¹⁾ FTA

GCC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 내의 건설시장 진출과 여타 경쟁국에 의한 우리의 수출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GCC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양측은 가급적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제 1차협상은 2008. 07. 9 ~10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제 1차 협상 이후 양측은 상품양허안을 교환한 바 있으며, 제 2차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GCC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다. GCC와의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GCC와의 FTA는 이들 국가내의 고소득층을 향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전망이다.

2.2.6. 한·중국 FTA 공동연구

한·중 FTA 공동연구는 '5.3월~'06.10월까지 완료된 민간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07.-3월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농업전문가 회의를 포함하여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농업현황, 교역상황,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비교 및 민간 공동연구 결과 명기 등 농업 보고서 문안의 대부분에 합의하고, 남은 쟁점 사항인 한국 농업의 민감성 반영 관련 문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농업 보고서에 "한국 농업의 민감성 관련 문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것인가가 공동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 FTA 추진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공동연구 보고서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3. 한·미 FTA 타결과 제주감귤농업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한미FTA의 타결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무역대국 비전 국가로서 당연한 전략이라고 사료된다.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은 연간 약 2

1) GCC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동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 협력기구를 말한다.

조달리에 달하는 국제시장으로서 무역의존도가 약 70%에 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점해야 할 중요한 전략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개방화와 세계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제품기술의 증진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타결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여타국가와의 FTA체결에 있어 경쟁우위를 점유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업이 국제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현실에서 한국농업의 개방화는 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과 함께 농어민의 자구노력도 절실히 요망된다. 농산물의 품질은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자구노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제주감귤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FTA타결 내용중 제주감귤과 관련된 내용을 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감귤류수입에 대한 관세는 15년후 완전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주감귤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제주감귤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제주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며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국내시장위주의 마케팅전략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제주감귤은 우르과이 라운드의 여파로 국제경쟁력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긴 하였지만 한미FTA 타결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FTA타결로 첫째 제주감귤은 세계시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연간 약 60만톤이 생산되는 제주감귤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수출은 약 3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며 성장한 제주감귤산업은 국제시장의 환경변화에 무감각하리만치 국제적 흐름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국제경쟁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우르과이라운드, GATT체제 개편 - WTO체제출범, 한미FTA타결로 이리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감귤의 국제경쟁력강화 전략은 피상적 대응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제부터라고 제주감귤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전략과 국제시장 진출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제주감귤은 여타 과일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 한칠레FTA체결로 인하여 포도의 수입이 급증하고 여타국가와의 FTA체결 증대가 예상되고 있어서 세계의 과일이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어서 과일간의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격화시대에 있어서 제주감귤의 생존전략은 매우 긴급하고 필수적이다. 품질과 가격우위전략을 중심으로 한 제주감귤 생산규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영농기법의 개선도 동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제주감귤의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 분석이 중시되었다. 사실 지난 50여 년 동안 제주감귤은 장단점에 관계없이 수요가 있으니 생산하였고 생산이 되어 생과로 출하되어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단순

한 농작물로 편입되어 가공되거나 제조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우르과이라운드의 여파에 감귤의 기능성과 편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감귤을 원료로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품화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감귤의 경쟁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긴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타결은 제주감귤농업에 있어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면 제주감귤농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표 6> 한미 FTA타결내용 중 제주농산물 양허품목

구 분		현행관세 (%)	양 허 내 용	조수입 (억원)
과실류	오렌지	50	계절관세-9월~익년 2월 : 50%(현행관세) -3월~8월 : 30%(7년 감축) ※ 저율관세할당(TRQ) : 2,500톤 (매년 3%씩 복리증량)	감 귤 6,006
	감귤(만다린)	144	15년 철폐	
	오렌지주스	54	즉시 철폐(냉동), 5년 철폐(기타)	
기 타 농산물	감자	304	식용 현행유지, TRQ 3,000톤(3% 복리증량)	839
	마늘	360	15년 철폐, 18년 세이프가드	989
	양배추	27	즉시 철폐	346
축산물	쇠고기	40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612
	돼지고기	25	7~10년 철폐, 세이프가드	2,065

주 : 1) 2005기준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Ⅲ. 제주감귤농업의 실태

3.1. 제주감귤농업의 개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양상이다. 2006년도 GRDP기준으로 볼 때 제주지역은 제1차 산업이 13.9%, 제2차 산업이 3.1%, 제3차 산업이 83%의 비중이고, 2006년도 종사자 기준으로 볼 때 제주지역은 제1차 산업이 23.6%, 제2차 산업이 4.2%, 제3차 산업이 72.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은 관광산업과 농업을 위주로 발전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제주지역 내에서의 농업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 7> 제주지역 산업구조 현황 및 비전 개요

구 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현황 (2006년)	9,630억원 생산 제주도 GRDP 비중: 13.9% 종사자 비중: 23.6%	2,120억원 생산 제주도 GRDP 비중: 3.1% 종사자비중: 4.2%	6.4조원 생산 제주도 GRDP 비중: 83% 종사자비중: 72.2%
비전 (2030년)	생산규모 4조원 제주도 GRDP 비중: 10%	생산규모 4조원 제주도 GRDP 비중: 10%	생산규모 32조원 제주도 GRDP 비중: 80%
참고	$Y [GDP] = C [소비] + I [투자] + G [정부지출] + NX [순수출액]$		

자료 :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3.19

3.1.1. 일반 현황

이러한 독특한 산업구조를 시험하고 있는 제주지역 제1차산업에 있어서의 제주감귤농업의 비중은 대단하다고 하겠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제주지역 제1차 산업의 GRDP가 9,630억원을 생산을 시험하였지만 감귤의 조수익은 약 6,600억원을 실현하여 이를 비교해 볼 때 제주지역농업에서의 감귤농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제주지역 감귤 농업은 약 3만호의 감귤농가와 약 10만 명의 감귤농업인구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으며 제주 지역 총인구 약 50만명의 약 20%이상이 감귤농업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귤농업은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중요성 측면에서 제주감귤농업은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으며 감귤농업에 대한 대체산업이 개발되기 전에는 감귤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제주감귤농업의 개요

구 분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소득액(억원)	비고
2001	36,296	25,408	646,023	3,617	
2003	33,957	24,560	645,587	4,706	
2004	31,233	22,048	595,591	6,105	
2005	30,659	21,430	661,992	6,006	
2006	30,747	21,382	631,324	6,603	

※ 2006 노지감귤 재배면적: 19.0.5ha('05년:19,068ha)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9> 재배 작형별 생산 규모

구 분	극조생	조생	보통	비가림	만감류	하우스	비고
면적(ha)	1,449	16,897	689	501	1,494	352	21,382
생산량(톤)	35,863	514,690	18,367	14,476	27,587	20,341	631,324
면적구성비	6.8%	79.0%	3.2%	2.3%	7.0%	1.7%	100%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10> 감귤산업 규모('06년산 기준)

구 분	노지감귤	비가림 월동	한라본 등 만감류	하우스감귤	비고
출하시기	10월하~ 익년2월	2월~ 4월	2월~ 6월	5월~ 10월	연중
생산량	568,920	14,476	27,587	20,341	631,324
농가수	24,605	989	4,102	1,051	30,747
조수입	4,702	342	927	632	6,603억
농가당평균	19,110천원	34,580천원	22,589천원	60,133천원	21,475천원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11> 감귤재배규모 농가 현황('04년 기준)

구 분	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ha 이상
농가수 (호)	31,233	2,342	14,086	8,496	3,592	1,530	875	312
구성비 (%)	100	7.5	45.1	27.2	11.5	4.9	2.8	1.0

* 1ha미만농가: 80%차지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12> 연령대별 농가 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가수	1,999	5,841	7,402	9,683	6,309	31,233
비율(%)	6.4%	18.7%	23.7%	31.0%	20.2%	100.0%
면적(ha)	821	3,263	5,963	8,112	3,889	22,048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13> 수령별 과원 현황('04 기준)

구 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이상	계
면적(ha)	595	1,125	4,057	16,271	22,048
비율(%)	2.7%	5.1%	18.4%	73.8%	100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3.2. 제주감귤의 생산 및 유통 실태

제주감귤은 약 3만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바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 이전인 1977년에는 연간 약 11.6만톤, 1980년도에는 약 19만톤을 생산하였고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급격히 생산이 증대되어 1985년도에 약 40만톤, 1990년도에 약 50만톤, 1994년도에 약 55만톤, 1995년도에 약 61만톤을 생산하였고 2000년도에는 약 56만톤, 2002년도에는 무려 약 79만톤을 생산하여 감귤생산피크를 이루었고 2004년도에 약 59만톤을 생산하다가 2006년도에는 약 63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감귤이 거의 100% 국내시장위주로 유통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되는 1980년대 이후 감귤생산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감귤에 대한 정부의 감귤지원정책에 의한 결과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할 때 그동안의 제주감귤지원정책이 심히 무계획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세계의 감귤생산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감귤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한미 FTA타결에 따라 제주감귤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근원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4> 연도별 감귤생산 실태

연도별	재배농가(호)	면적(ha)	생산량(톤)	조수입(백만원)
1977	18,344	11,709	115,500	25,870
1978	18,470	12,089	125,950	31,907
1979	19,019	12,909	172,150	55,088
1980	19,996	14,094	187,470	54,500
1981	20,605	14,764	347,780	78,400
1982	20,645	15,500	323,420	100,903
1983	23,182	16,975	345,900	74,044
1984	23,182	16,975	261,000	115,582
1985	23,332	16,969	394,300	124,189
1986	23,685	16,959	333,100	141,598
1987	24,632	17,614	464,391	166,818
1988	24,892	17,829	412,660	210,579
1989	25,541	19,335	746,400	202,000
1990	25,616	19,414	492,700	315,100
1991	25,818	19,605	556,350	425,134
1992	29,541	21,717	718,700	262,330
1993	26,571	21,479	619,000	394,829
1994	26,596	21,448	548,945	552,120
1995	26,589	21,605	614,770	433,447
1996	36,055	25,802	479,980	607,932
1997	36,055	25,781	693,200	400,862
1998	36,212	25,860	543,980	515,798
1999	36,073	25,823	638,740	325,709
2000	36,590	25,796	563,341	370,811

2001	36,296	25,408	646,023	361,683
2002	35,078	25,207	788,679	316,494
2003	33,957	24,560	645,587	470,415
2004	31,233	22,048	595,591	610,491
2005	30,659	21,430	661,992	600,639
2006	30,747	21,382	631,324	660,288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15> 세계 감귤 생산현황(2006년)

(단위: 톤)

구분	오렌지	탄제린 만다린 등	레몬·라임	그레이프 후르츠	기타	합계
브라질	18,059	1,233	1,031	68	-	20,391
미 국	9,000	417	942	1,118	26	11,503
중 국	2,694	11,395	635	443	1,135	16,302
멕시코	3,980	337	1,866	380	40	6,603
스페인	3,211	2,126	868	30	14	6,249
인 도	3,469	-	1,618	154	113	5,354
이 란	2,253	702	615	54	72	3,696
나이지리아	-	-	-	-	3,546	3,546
이탈리아	2,356	590	583	7	29	3,565
아르헨티나	792	660	1,393	191	-	3,036
이집트	1,789	665	338	3	3	2,798
터 키	1,536	791	710	180	2	3,219
파키스탄	1,721	639	98	-	-	2,458
일 본	63	842	-	-	159	1,064
남아공	1,334	133	217	415	7	2,106
그리스	958	126	84	8	1	1,177
모로코	788	454	22	1	10	1,275
태 국	339	670	82	23	6	1,120
쿠 바	178	19	6	170	-	373
한 국	-	631	-	-	-	631
이스라엘	147	133	36	266	11	593
호 주	571	102	38	11	2	724
기 타	8,605	1,286	1,641	977	1,899	14,408
합 계	63,843	23,951	12,823	4,499	7,075	112,191

자료: 1. FAO농업통계(FAOSTAT), 2006

2.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제주감귤은 국내상품용, 가공용, 기타도내소비로 유통되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산 노지감귤인 경우 총 568,920톤 가운데, 상품용 감귤은 72%인 408,945톤으로서 이 가운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물량이 191,912톤, 일반상인에 의한 출하량이 2217,037톤으로서 일반상인에 의한 출하물량이 약간 높은 유통량을 시현하고 있다. 가공용 감귤물량은 약 19%로서 109,496톤이고 도내소비물량은 약 9%로서 50,475톤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내시장 위주의 제주감귤의 유통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지난 40여년간 지속됨으로서 앞으로 FTA시대에 있어서 제주감귤의 위기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16> 감귤유통실태(노지감귤)

(단위 : 톤)

구 분	2006년산		2005년산		2004년산		비 고
	수 량	비율(%)	수 량	비율(%)	수 량	비율(%)	
상품용	농 협	191,912	34(46.9)	227,932	38(50.3)	213,378	40(55)
	일 반	217,037	38(53.1)	225,568	37(49.7)	175,746	33(45)
	계	408,945	72(100)	453,500	75(100)	389,124	73(100)
가공용	109,496	19	124,855	21	100,617	19	
기 타	50,475	9	22,156	4	47,027	8	
합 계	568,920	100	600,511	100	536,668	100	

주) 1. 상품용 : 수출(2,746톤), 군납(822톤), 북한보내기(261톤) 포함됨

2. 기 타 : 도내소비 등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 · (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3.3. 제주감귤 조수의 현황

제주감귤의 조수익은 2004년도 약 6,105억원, 2005년도 약 6,006억원, 2006년도 약 6,603억원을 시현하여 2000년대 중반이후 6,000억대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주감귤의 조수익은 제주농업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절대적이며 2006년도인 경우 제주농업 조수익 총액 약 1.2조원의 55.3%를 점유하고 있어서 감귤농업이 제주농업에서 절대적인 작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표 17〉 감귤의 제주농업 기여도

작 물 명	면 적(ha)	생산량(톤)	조 수 익		
			금액(백만원)	구성비(%)	순 위
합 계	59,293	1,449,647	1,194,534	100	
감 귤	21,382	631,324	669,288	55.3	1
마 늘	3,954	68,305	102,753	8.6	2
감 자	5,211	113,130	102,202	8.5	3
화 훼	347	45,975	33,596	2.8	4
당 근	1,965	86,887	29,634	2.5	5
무	3,407	208,272	29,256	2.4	6
양배추	1,654	96,385	25,594	2.1	7
콩	6,590	9,381	18,762	1.6	8
양 파	921	53,302	17,373	1.4	9
시설채소	146	8,027	14,323	1.2	10
참다래	220	3,167	14,104	1.2	11
참 계	1,580	809	10,788	0.9	12
맥주보리	2,495	10,643	9,367	0.8	13
단 감	114	1,677	8,682	0.7	14
기 타	9,307	112,363	117,830	10.0	-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 · (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18〉 제주감귤 품종별 조수입 현황(2006년산)

구 분	처리량(톤)	Kg당 단가(원)	조수입(백만원)	
합계	631,324	1,046	660,288	
노지감귤	소계	568,920	827	470,239
	도외출하	405,120	1002	406,099
	수출	2,746	645	1,770
	군납	822	795	654
	가공용	109,496	101	11,088
	북한보내기	261	120	31
	기타	50,475	1002	50,597
하우스	소계	20,341	3,107	63,202
	도외출하	18,956	3,107	58,890
	수출	12	3,866	45
	기타	1,373	3,107	4,267

월동은주	소계	14,476	2,363	34,213
	도외출하	9,101	2,363	21,507
	수출	12	2,628	31
	기타	5,363	2,363	12,675
만감류	소계	27,587	3,358	92,634
	한라봉	18,280	3,706	67,746
	금감	3,027	1,519	4,597
	네블오렌지	528	1,987	1,049
	청견	2,235	2,395	5,353
	진지향	1,022	3,555	3,634
	천혜향	1,950	4,768	9,297
	기타	545	1,758	958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 · (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IV. 제주감귤농업의 대응전략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식재하기 시작한 제주감귤은 지난 50년 동안 제주경제의 버팀목이었으며 제주감귤은 제주지역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제주감귤은 그동안 제주경제의 단단히 지탱하여 주었으며 제주농민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감귤은 제주농민의 희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제주감귤은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가 있기 전까지는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며 경제 불황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이다. 이러한 제주감귤산업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세찬 세계화의 흐름 속에 근본적인 경쟁체제 속에 함몰되기 시작하여 1995년 WTO출범으로 감귤산업의 생존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감귤에 대한 국내시장의 보호막이 무너짐에 따라 제주농민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 한미FTA가 타결됨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마련에 전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제주감귤생산량 연간 약 60만톤을 거의 국내시장에서 소모시키고 있다. 일방적 국내시장일변도의 생존전략으로 과연 제주감귤의 미래가 있을까? 한미FTA가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시장의 국내시장보호막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생존전략일까?

상품에 관계없이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생존전략의 핵은 품질과 가격과 유통이 아닐까? 즉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상품의 생존전략은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유통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

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면 그 상품은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감귤은 형태는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농산물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이다. 상품이라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감귤소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을 원할 뿐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을 출하해야 할 의무가 감귤농가에 주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감귤은 세계의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독점적인 위상에 안주하는 농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생존전략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최대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시기에서 제주감귤의 생존을 위한 전략은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투자와 영농기법의 개발 그리고 감귤경영체제의 개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감귤농가 약 3만호, 감귤생산 연간 약 60만톤, 감귤조수익 약 6000억원(약 4억불)에 불과한 물량을 21개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과감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제주감귤이 세계의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면 국내시장위주의 감귤마케팅전략이 아니라 수출마케팅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감귤의 수출상품화 전략을 과감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제주감귤농업의 생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감귤품질경쟁력강화전략 - 감귤품질인증제도 도입

감귤품질은 감귤농업의 생존을 위한 핵이다. 감귤품질경쟁력은 감귤산업의 기본이며 감귤품질의 내용은 당도와 산도의 함량으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감귤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귤품질향상을 위한 농가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감귤품질에 대한 자구노력을 적극 유인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감귤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가운데 감귤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감귤농가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감귤농가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감귤품질인증제도는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한 일정한 감귤인증기준을 설정하여 감귤농가별로 감귤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감귤농가로 하여금 감귤품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감귤등급을 10등분하여 소과와 대과를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양적 조절이 아니라 당도와 산도 그리고 크기를 적절하게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당도와 산도를 생산단계에서부터 통제 관리함으로써 감귤의 세계상품화를 기하고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제주감귤은 지난 50여년간 감귤농가의 각고의 노력과 정부의 감귤지원정책에 힘입어 감귤영농기술이 발전하고 감귤품질이 많이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감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감귤농가들도 감귤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감귤농가의 자생력이 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당도 1.2부릭스 이상이면 브랜드 감귤로 좋은 가격을 호가하는 현실에서 감귤품질인증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감귤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감귤의 품질은 감귤농민의해 감귤농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귤의 생산단계서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 까지 품질의 이력을 관리 통제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면 이 기준에 합당한 감귤과 합당치 못한 감귤은 당연히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4.2. 감귤가격경쟁력증진전략 -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

상품의 가격경쟁력강화전략은 제품품질강화 전략과 제품원가절감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감귤품질강화전략은 별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본 란에서는 제품원가절감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원가절감전략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원가절감에서 시작된다. 상품의 생산원가절감 비롯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을 절감함으로써 최종적인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감귤가격 역시 이러한 일반 상품가격구성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감귤가격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1) 감귤생산원가, 2) 감귤출하비용, 3) 감귤농가이익(일반적으로 사후정산금액)으로 대별 될 수 있다. 감귤생산원가절감은 감귤농가의 경영합리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감귤출하비용은 감귤농가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감귤가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표-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랜드감귤인 블로초의 출하비용 중 제통수수료의 비중이 총출하비용의 54.5%에 이르러 농협, 감협, 가락동농수산물 도매 센터 등 유통기관 등의 수수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합리적 징수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감귤인 경우에도 출하비용에서 수수료의 비중이 33.2%가 되어 감귤농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감귤유통에 따른 유통수수료의 조정이 선행됨으로써 감귤가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4년도 이후 감귤의 연간 조수익이 약 6,000억원대로 거의 고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US\$로 환산하면 연간 조수익이 약 4억불의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모두 수출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4억불 정도의 매출이라면 중소수출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조수익 연간 약 6,000억원(약 US\$4억)정도의 감귤물량을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약 10만명의 감귤농민가족이 관련되면서 20개의 단위농협이 감귤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불과 4억불의 매출을 시현하는 기업에 20여개의 기관이 관여함으로써 관리비의 지출이 과생되고 이로 인해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감귤경쟁력증진전략은 감귤생산원가절감전략을 비롯하여 감귤유통구조의 과감한 조정전략 및 제주지역물류혁신전략을 동시에 감안하며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9> 블로초 감귤과 일반감귤과의 가격 비교

구 분	블로초(A)		일반감귤(B)		대비(A-B)	
	06년산	05년산	06년산	05년산	06년산	05년산
물 량	470	526	405,120	446,935		
평균경락가	32,140	31,820	13,026	12,133	19,114	19,687
농가수취가	26,827	26,911	9,828	8,838	17,307	18,073
출하비용	5,313	4,909	3,218	3,295	1,787	1,614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 · (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20> 출하비용 내역

구 분	상자대	운송비	선별비	하역비	수수료 (상장등)	계
블로초 감귤	850	670	900	190	2,893(54.5%)	5,313
일반 감귤	700	710	550	190	1,068(33.2%)	3,218

※ 블로초 감귤 수수료 : 수탁수수료 3%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 · (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표 21> 감귤류 출하 비용(예)

구분 (경락가격)	상자대	운송비	선별비	하역비	수수료 (상장등)	계
노지감귤 (13,000원)	700	710	550	190	1,040 (8.2%)	3,190 (24.5%)
하우스감귤 (20,000원)	710	1,320	600	100	1,600	4,330 (21.7%)
한라봉 (20,000원)	700	1,000	520	80	1,600	3,900 (19.5%)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사)제주감귤협의회, 2007. 10

4.3. 감귤수출상품화 전략 - 감귤수출전문업 육성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FTA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개방화와 글로벌화의 흐름이 제주감귤농가에도 본격 스며든다. 31,000여호의 감귤농가는 위기의식 속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내수시장위주로 존속했던 감귤산업은 이제부터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것이다. 사실 제주감귤은 지난 40여년간 사실상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국내소비자에 의존하는 대내시장상품이었기에 오랜지시장이 개방에도 불구하고 감귤경영전략은 정부의존적 정책에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 놓여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무역대국의 대하민국에서 연간 감귤생산량 약 60여 만톤을 거의 국내시장에 출하하여 연간 약 6,000억원의 조수익을 시현하고 있다. 감귤수출은 고작 연간 약 3-4천 톤에 불과하다. 이는 감귤에 관한한 해외시장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찬 흐름을 경험했고 1990년대말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핵심 농산품인 감귤의 해외시장개척 정도가 이렇게 보잘 것이 없다면 과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제주감귤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더구나 한미 FTA로 상징되는 개방화의 물결이 제주감귤농업에 세차게 몰아치는 글로벌화의 현실에서 감귤농업의 대응전략은 감귤농업의 근원적 측면에 착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미 FTA시대에 있어서 제주감귤의 생존전략은 제주감귤의 수출상품화 전략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 연구 분석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 제주감귤수출실적

(단위 : 톤)

구 분	2006년산	2005년산	2004년산	비 고
노 지 감 귤	2744	3,358	5,264	
하우스감귤 등	54	194	437.4	
합 계	2,798	3,552	5,701.4	

자료: 제주지역농협본부 · (사)제주감귤협의회, 2004-2006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에서 정리

V. 결 론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한국은 약 14개월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2007년 4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합의하였다. FTA반대론자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경제의 도약

을 위해 한미FTA 타결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중심적 경제발전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연간 약 2조달러의 수입시장인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우월적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 5,000만 인구의 호구지책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역입국의 비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수출드라이브정책은 세계시장의 확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사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200여국 중 최빈국 국가였으나 약 40여년이 지난 2007년 현재 한국은 세계 12위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도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가? 바로 국제무역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무역입국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역입국의 전략의 핵심은 수출시장의 확대와 수입시장의 다변화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시장의 공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경제가 발전 전략이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타결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물론 한미FTA타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분야가 있다. 이것은 대내적으로 반드시 해소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대내적인 과제는 효과적인 전략과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완하면서 해소해야 한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FTA 모든 내용과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 타결될 수는 없다. 한미 FTA가 타결된 현실에 있어서 분야별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주감귤농업도 한·미FTA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된다. 198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하여 제주감귤농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함께 부단히 자구노력을 집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감귤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지난 10여년간 감귤농업에 투입한 각종 감귤지원금의 용도와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과연 그 막대한 제주감귤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제주감귤농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시켰을까? 막대한 정부의 감귤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타결로 제주감귤농업에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은 감귤농업 깊숙이 파고들면서 감귤농민의 가슴을 멎들고 있다. 한미FTA타결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제주감귤농업의 위기임을 부인할 없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감귤농업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타결에 따른 제주감귤농업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품질과 가격전략이다. 세계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제주감귤이 한국시장 중심적 마케팅 전략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제주감귤의 세계시장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감귤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타결에 따른 제주감귤농업의 대응전략은 첫째 감귤품질인증제도 중심으로 한 감귤품질경쟁력강화전략, 둘째 제주감귤유통혁신에 의한 물류비 및 유통수수료 인하 등을 중심으로 한 감귤가격경쟁력증진전략 셋째 감귤수출학교 설치 운영 등 감귤수출전문업의 육성

을 통한 제주감귤수출상품화전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미FTA의 타결은 제주농업에 있어서 위기임이 분명하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실현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제주감귤은 결코 국내시장만을 위한 상품이 결코 아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에서 감귤의 거의 대부분을 국내시장에만 소비 시키겠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이미 제주감귤은 감귤농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제상품화 대열에 들어섰다. 국제상품으로서 감귤의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꾸준한 원가절감을 통해 세계의 소비자를 만족 시켜야 한다. 동시에 제주감귤이 국제상품으로서의 성가를 발휘될 수 있도록 감귤수출학교의 설치 운영하고 공격적 감귤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감귤수출지원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주감귤의 기능성과 청정성을 감안하여 제주감귤가공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감귤은 제주경제를 지탱해준 제주의 효자농업이다. 감귤은 제주지형에 적합한 농작물이다. 제주감귤은 제주농업의 희망이다. 제주감귤은 제주관광과 환경보호에 지대한 역할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주감귤농업은 제주지역의 핵심적 분야로서 세계화 시대의 제주경제발전을 위해 육성 발전해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경선(2002), 제주감귤의 발전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간행.
- 강경선(2004), 지역 해외농업의 발전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도훈 외(1996), 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 산업연구원 간행.
- 김중훈 외(2006),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국정홍보처 간행.
- 김창호(2006), 한미FTA, 무엇이 쟁점인가? 국정홍보처 간행.
- 농림수산물식품부 국제농업국, 월간 국제업소식 2006. 12. - 2008. 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FTA 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
- 박세일 외(2006), 한미FTA 대한민국보고서, 선진화국민회의 간행.
- 서귀포농협,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각차이에 기초한 제주도감귤산업의 마케팅전략 방향.
- 송기호(2007),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간행.
- 이희범(2006),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간행.
- 정부관계부처합동(2006), 한미FTA의 알파와 오메가.
- 정인교(2006),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도서출판 해남 간행.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2003),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연구,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2001), 제주감귤농협40년사.
- 제주농협지역본부, (사)제주감귤협의회,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2000년산 - 2007년산).
- 제주대학교(2005), (사)제주감귤협의회, 2004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보고서.
-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2006), 감귤산업과 연구동향.
-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2005), 한일FTA대비 감귤산업대처방안.
- 제주특별자치도(2008), 아태지역친환경농산업 심포지엄.
- 최병일(2006),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간행.
- 탐라대학교(2002), 2000년 제주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종합보고서 제1권 및 제2권
- 한국무역협회(2006), 한국무역사, 경원비즈니스 인쇄.
- 한국무역협회(2008), 2008무역년감, (주)보성인쇄기획 인쇄.
- Joseph E. Stiglitz & Andrew Charlton(2005), Fair Trade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 Vern Terpstra(1983), International Marketing, The Dryden Press